

# 책 읽은 게 죄? 악플러 표적 된 여성 연예인들

아이린·수영 등 팬들 '탈덕' 위협  
정유미, 평점 테러 등 1년째 피해  
RM엔 무반응...이중적 공격 비판

"자유롭게 읽을 자유, 누가 검열하는가."

배우 김옥빈이 최근 동료 연기자인 서지혜의 SNS에 남긴 글이다. 서지혜가 9월26일 SNS에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표지와 함께 "책 펼치기 성공"이라고 쓴 직후 일부 누리꾼이 몰려와 '페미니스트 흉내' '페미 깃'이라는 공격을 퍼붓자 김옥빈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언급하는 여성 연예인을 향한 혐오성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 1982년 태어난 김지영의 평범해 보이는 삶을 통해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다룬 소설은 100만부가 팔린 화제작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성차별을 역으로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 ●왜 여성 연예인에게만?

문제는 혐오성 공격이 줄곧 여성 연예인에만 향한다는 점이다. 서지혜에 앞서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은 지난해 팬미팅 도중 "요즘 읽은 책"으로 '82년생 김지영'을 언급했다 남성 팬들의 '탈덕'(팬탈퇴) 선언에 직면했다. 소녀시대의 수영도 방송에서 책 이야기를 꺼낸 뒤 공



연기자 정유미가 9월30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82년생 김지영' 제작 보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격을 받았다. 반면 2017년 "시사하는 바가 남달라 인상 깊었다"고 언급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을 향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여성에게만 집중된 '이중적 공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성 연예인이 인기를 바탕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분

위기 속에서 성적 차별로 인한 피해자임을 내세운다거나, 여성 주체적 시각의 확산을 '역차별'로 바라보려는 일부 누리꾼의 '여성혐오'적 시선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페미니즘에 대한 일부 남성의 반발심이 커진 가

운데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됐다"며 "지금처럼 악의적인 혐오 공격이 반복되면 여성 연예인들이 페미니즘 키워드를 피해가거나 목소리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회를 건전하지 않은 쪽으로 몰고 가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유미 "제대로 만드는 일, 우리의 일"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싸고 1년째 혐오 피해를 입은 배우도 있다. 소설을 옮긴 영화의 주인공 정유미이다. 지난해 9월 영화 출연을 처음 알린 직후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왜 남녀갈등에 불을 지피는 작품에 출연하느냐"고 공격받은 그는 인격모독에 가까운 악성 댓글에도 시달렸다. "정유미의 출연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영화가 이달 말 개봉하기로 하면서 날선 시선은 다시 불붙고 있다. 포털사이트 영화 게시판에서는 작품을 보지도 않은 채 1점으로 평점을 도배하는 '평점 테러'까지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 참여한 배우와 제작진은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뜻을 모았다.

9월30일 서울 자양동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정유미는 "담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어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바르게 영화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 연예뉴스 HOT 4

#### 트와이스, 걸그룹 초동 판매 신기록



트와이스

그룹 트와이스가 9월 23일 발표한 미니 8집 '필 스페셜'로 국내 걸그룹 역대

최다 초동 판매량(발매 일주일 판매량)을 기록했다. 9월30일 한터차트에 따르면 '필 스페셜'은 9월29일 기준 15만4000장이 팔려 기록을 달성했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댄스곡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트와이스는 20일 오후 1시와 6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데뷔 4주년 기념 팬미팅 '원스 헬러원 2'를 개최한다.

#### 'FNC 1호 예능인' 송은이 홀로서기



송은이

방송인 송은이가 7년간 몸담았던 FNC엔터테인먼트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다. FNC엔터테인먼트는 9월30일 "전속계약이 이날 종료한다"며 "FNC 1호 예능인으로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송은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송은이는 최근 자신이 설립한 매니지먼트사 미디어랩 시소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 개그우먼 신봉선을 영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송은이는 이날 SNS에 "집 나가면 고생이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는 제 행보를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 몬스타엑스, 2년 연속 '징글볼' 무대



몬스타엑스

그룹 몬스타엑스가 2년 연속 미국 '징글볼' 투어 무대에 오른다.

미국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하트라디오는 최근 공식 SNS 채널로 "몬스타엑스가 12월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미니애폴리스, 11일 필라델피아, 13일 뉴욕에서 '징글볼' 투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투어는 아이하트라디오가 미국 전역을 무대로 매년 개최하는 연말 콘서트로, 올해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케이티 페리 등 스타들이 참여한다. 몬스타엑스는 작년 케이팝 그룹 최초로 합류한 바 있다.

#### 이홍기 현역 입대 "꼭 다시 만나요"



이홍기

그룹 FT아일랜드의 멤버 이홍기가 입대했다. 이홍기는 9월30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육군 21사단 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를 통해 입소했다. 이홍기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육군 현역으로 복무한다. 이홍기는 입대를 앞둔 9월29일 SNS로 "꼭 다시 만나요 우리"라며 팬들에게 인사를 남겼다. 2002년 KBS 2TV '매직카드 마수리'에 출연한 그는 2007년 FT아일랜드로 데뷔해 노래 '사랑이야' '지독하게' 등을 발표했다.

## '군필' 삼총사 안방 컴백 성적표...강하늘 A+

비슷한 시기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대표적인 '군필' 연기자 강하늘, 임시완, 지창욱이 잇따라 성적표를 건네받고 있다. 이들은 입대 전 입지를 견고히 다져 약 2년의 공백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었지 시선을 모았다. 중간성적을 토대로 강하늘은 더욱 강해졌고, 임시완과 지창욱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하늘

임시완

지창욱

강하늘은 기대 이상 활약하고 있다.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출연 중인 그는 치명적인 '촌프러탈'의 매력으로 여성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극중 순박한 어촌마을 순경이지만 동백(공효진)을 바라

보며 순애보의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효진 과도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9월25일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10%(닐슨코리아)를 넘겼다. 이를 통해 시청자와 더욱 가까워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TV보다는 영화에

서 주로 활약해 이번 드라마로 폭넓은 시청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었다.

임시완과 지창욱은 다소 고전 중이다. 임시완은 케이블채널 OCN 토일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통해 담백하고 침착하게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의 성패를 책임진 주연 연기자로서는 아쉬움을 준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라는 화제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3.8%로 시작한 시청률은 후반부로 가면서 2%대로 떨어졌다. 마니아 시청자를 확보했다는 설명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달려 보인다. 살인 등 잔인한

### '동백꽃...'서 순애보 캐릭터로 활약 임시완·지창욱, 시청률 부진 '고전'

장면이 자주 등장해 불쾌하다는 시청자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창욱은 복귀 시작부터 '쓴맛'을 봤다. 입대 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지만 복귀작인 tvN 토일드라마 '날 녹여주오'로 2%대의 시청률을 받았다. 9월28일 첫 방송해 아직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스타성이 아쉽기만 하다. 극중 냉동인간이 되어 20년 뒤 깨어나는 설정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허둥대는 코믹한 모습과 함께 그만의 강한 카리스마를 과시했지만 로맨스, 코미디, SF 등이 뒤섞여 그의 매력을 가린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유튜브로 간 예능... '탈 안방' 콘텐츠 뜬다

### '신서유기 외전' 영상 100만 뷰 훌쩍 '무엇이든 물어보살'도 역편성 인기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유튜브가 예능프로그램의 새로운 '발판'으로 각광 받고 있다. 본 무대인 안방극장보다 유튜브를 통해 인기를 얻는 예능프로그램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채널 tvN '신서유기 외전: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끼'와 KBS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이다.

'아이슬란드 간 세끼'는 '신서유기' 시리즈의 멤버인 이수근과 은지원이 아이슬란드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을 담는다.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삼시세끼 산촌편'이 끝난 직후인 밤 10시40분부터 5분간 방송한다. 이에 따라 TV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분량은 10분 안팎의 영상으로 나눠 공개한다. 1주일 만에 대부분의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다. 독특한 '5분 편성' 전략을 통해 TV와 웹예능 장르의 장점을 모두 취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KBS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도 유튜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방송인 이수근과 서장훈이 시청자를 직접 만나 연애와 취업 등 각종 고민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연자의 고민을 짧게 담은 클립 영상은 매주 유튜브 인기 영상 차트에 오른다. 온라인상에서 이름을 알린 덕분에 5월 한 달 동안 본 채널인 KBS 2TV에 '역편성' 되기도 했다.

두 프로그램은 이처럼 에피소드나 사연 위주로 짧은 콘텐츠를 재구성해 재미를 보고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심소희 책임프로듀서는 9월30일 "10분 안팎의 영상 길이가 짧은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청자와 소통한 덕분에 시청자 층이 더 탄탄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 프로듀서는 "유튜브로 본 10~20대 시청자들이 TV로도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상 입소문이 폭 넓은 연령대 시청자들을 유입하는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역시 음원강패...차트 줄세운 악동뮤지션

### 2년 공백 무색...정규 3집 차트 점령 이찬혁 소설 '물 만난 물고기'도 대박

남매 듀오 악뮤(악동뮤지션, 이찬혁·이수현)가 2년 2개월의 공백이 무색하게 흥행 파위를 과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정규 3집 '항해' 수록곡으로 모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휩쓸며 '음원강자'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9월25일 앨범을 공개한 뒤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가 30일 오후 2시 기준 5일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수록곡 '달', '프러미드', '물 만난 물고기', '밤 끝없는 밤', '벚노래' 등도 30위권에 모두 안착했다. 타이틀곡은 헤어질 연인의 공감을 얻을 만한 가사와 선율이 가을 분위기와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10대였던 두 남매가 어느덧 20대에 들어서면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과 목소리로 팬들을 사로잡았다는 호평이 잇따른다. 앨범 흥행과 함께 이찬혁이 쓴 소설 '물



악동뮤지션

만난 물고기'도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현재 각종 온라인 서점의 국내 도서 주간 베스트 18위, 소설 주간 베스트 1위를 차지했다. 수록곡과 같은 제목의 소설은 "노래를 들으며 소설을 읽으면 독자의 상상력을 북돋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찬혁이 해평대 북부 중 쓴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활동 보폭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9월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아외 청음회 '가을밤의 항해'를 열고 3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 여세를 몰아 12월14일과 15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뒤 전국으로 발길을 넓혀 지방 팬들을 만나러 나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